

대학 강의에서 페이스북 기반 성찰활동의 효과

서주연[†] · 이정민^{††}

요 약

본 연구는 페이스북에서 성찰활동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A대학교의 대형강의를 수강하는 181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페이스북 집단(실험집단, 90명)과 사이버캠퍼스집단(통제집단, 91명)으로 구분하여 4주 동안 성찰활동을 진행하고 만족도의 차이를 독립표본 t검정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페이스북 집단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던 학생 2명,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던 학생 2명과 인터뷰하여 페이스북 기반 성찰활동의 장, 단점을 심층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페이스북에서 성찰활동을 진행한 집단이 사이버캠퍼스에서 성찰활동을 진행한 집단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그 이유는 페이스북 집단에서 동료 간의 상호작용성이 높았고, 성찰을 위한 다양한 정보수집 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 페이스북 기반의 성찰활동이 대학 대형 강의에서 활용된다면 학생들의 교과목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교수학습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 페이스북, 성찰활동, 대학강의, 학습 만족도

Educational impact of reflection activities using Facebook in university lectures

Juyeon Seo[†] · Jeongmin Lee^{††}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reflection activities on using Facebook in university lectures.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is study, an experiment was conducted with 181 students who took a large-scale university lecture. Subjects were assigned into two groups: 90 facebook group(experimental group) and 91 cybercampus group(control group). They participated reflection activities on facebook or cybercampus during 4 weeks. Independent samples t-test with in-depth interview were employed to analyze dat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learning satisfaction between facebook group and control group. Learning satisfaction of facebook group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control group because reflection activities on facebook provided to gather information on reflection and to interact with peers easily. In conclusion, these findings imply that reflection activities on facebook is effective for improving learning satisfaction of large-scale university lectures.

Keywords : Facebook, Reflection activities, University lectures, Learning satisfaction

[†] 정 회 원: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삼성전자 상생협력아카데미 과장

^{††} 정 회 원: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논문접수: 2014년 7월 30일, 심사완료: 2014년 9월 16일, 게재확정: 2014년 9월 22일

1. 서론

오프라인의 관계형성을 온라인화 한다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시작된 페이스북은 온,오프라인의 관계 강화와 소통, 커뮤니티 형성을 통해 정보공유와 지식생성, 집단지성을 형성하며 소셜러닝을 위한 도구로 계속 발전해나가고 있다[1]. 수업에서 일어나는 학습은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과정을 거쳐 수행되는 반면, 페이스북을 통해 일어나는 학습은 사용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흥미에 의해 형성되는, 때로는 놀이 같은 무형식 학습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2]. 즉, 페이스북과 같은 개방된 구조에서는 다양한 관심을 가진 학습자가 학습 데이터를 생산하고 자신의 요구에 맞게 다른 학습자와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학습을 진행하는 소셜네트워크에 기반한 학습이 가능하다[3]. 최근 사회변화가 급속화되면서 기존에 객관화된 지식을 전달하던 일방향 강의식 교수-학습 환경에서 학습자 간의 소통과 공유, 표현과 참여, 개방과 확장이 이루어지는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환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페이스북 학습환경은 이러한 학습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는 것이다[4].

초기에는 SNS가 가지는 이러한 장점이 형식 학습(formal learning) 보다는 비형식 학습(informal learning) 맥락과 연결되어 논의되는 경향을 보였으나[4], 최근 일부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정규 대학교육 과정에서 SNS를 활용한 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경우 학습자의 학습 동기 등을 높일 수 있는 등의 다양한 장점을 제기함으로써 형식학습에서의 SNS활용 사용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5].

대학교육에서 페이스북에서의 학습활동이 갖는 대표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개방적인 학습플랫폼에서 학습자가 형성하고 만들어가는 학습자 중심의 학습이 가능하다[6]. 학습자는 관심을 갖는 이슈에 대해서 페이스북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공유하며, 동료 학습자와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의견과 정보를 주고받는 학습의 주체가 된다. 둘째, 교수자는 단순히 학습 내용을 전달하는 것에서 벗어나 학습자들과 함께 공유하고 토론하며 지식을 정교화하고 함께 완성해 나가면서 학습자들의

학습 진도를 모니터링을 통해 깊이 있는 학습을 유도하고 수업에 대한 내용과 함께 일상적인 경험에 대해서도 쉽게 대화하면서 학습자들과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관계중심의 학습환경을 제공한다[7]. 그러므로 대형강의의 경우 페이스북을 학습보조도구로 활용한다면,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수업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단순히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학습효과가 생기지는 않으므로, 성찰(Reflection)이라는 교수학습전략을 적용하여 페이스북 기반 성찰활동을 제안하였다. 성찰활동이란 내면의 생각과 성찰을 통해서 수동적으로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동료와 함께 성찰을 통해서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과정까지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개방적이고 사회성이 강한 페이스북에서 활용된다면 강력한 교수학습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대학수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성취도를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Strauss와 Volkwein(2004)는 대학생의 정의적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대학생들의 대학활동에 대한 참여성, 그리고 소속감과 만족감 등을 중요한 대학수업 성과로 보았다. 또한, 학생들의 정의적 성장, 즉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의지는 주변 친구들이 그러한 의지가 높다고 인식할 때, 학교가 프로그램 참여를 지지한다고 인식할 때, 학생들 스스로 적극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했다[8]. 최근 대학교육의 성과를 성취도가 아닌 학교만족도, 핵심역량증진 등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하는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9][10][11]. 이병식과 최정운(2008)은 대학교육의 성과를 대학생의 핵심능력개발로 보고하고 핵심능력으로는 분석적사고 능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및 활동하는 능력을 분석하였다[12]. 이처럼 대학교육 성과를 내기 위하여 최근 다양한 수업환경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페이스북 기반의 교과목 운영효과, 온라인 성찰저널에 대한 수업의 효과성 연구(권성호, 2001) 등은 있지만, 페이스북 기반의 강의 만족도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대상 대형강의에 페이스북 기반 성찰활동을 적용해보고 기존 사이버캠퍼스 기반 성찰활동과

비교를 통해 효과성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또한 심층인터뷰를 통한 질적 분석을 함께 하여 페이스북 기반의 강의를 설계하고자할 때 시사점을 알아보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페이스북 활용 수업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대형강의에서 교수자가 개개인의 학습자의 학습참여정도를 파악하기 어렵다. 하지만 페이스북과 같이 온라인에서는 기록성이라는 특수성을 바탕으로 학습자의 참여정도에 대한 파악이 용이하며 학습 참여활동이 저조한 학습자를 쉽게 발견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장점이 교수자들에게 페이스북 수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페이스북을 통한 교수의 자기노출과 자기개방이 교수자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3]. 이는 유머, 일상적인 이야기, 자기개방을 통해서 교수의 권위를 낮추고 보다 쉽게 다가가는 모습을 학생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페이스북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 간에 다양한 연대와 소통을 가능케 해 줌으로써 공동체에 대한 네트워크 학습을 도모할 잠재력을 지닌다[14]. 이처럼 페이스북의 속성을 활용한 교육 효과성은 온라인 상에서의 친분을 통한 자기성찰과 소셜적인 특성으로 인한 활발한 의사소통으로 이어져 수업활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de Villiers(2010)는 남아프리카 지역의 대학원생 24명을 대상으로 원격교육을 위해 제공된 페이스북 토론에 대한 학습자 반응과 그 효과를 질적으로 분석한 결과, 연구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페이스북 토론이 다양하고 풍부한 관점을 획득하고 학습내용을 이해하며 이슈를 명료화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교과내용 이상으로 자료를 찾아보고 개인적 기여를 해나감에 따라 학습효과도 더불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15].

또한, Selwyn은 대학생들이 주로 일상생활에

대한 잡담이나 인맥 관리를 위해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 페이스북이 교과과정의 수단 보다는 교육의 잠재적 문제점의 원인으로 제안되고 있다고 하였다[17].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페이스북을 단순히 수업에 활용하는 것으로는 교육적 효과성을 보장하지 못함을 시사하며, 페이스북에 맞는 교수방법이 고려되어야함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페이스북의 부정적인 학습 측면을 개선하고자, 교수학습전략 중 성찰활동을 적용하여 학습자 스스로 수업을 통해 무엇을 느꼈고, 배웠는지 등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 자기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연구를 하고자 하였는데, 기존 성찰저널의 연구는 개인이 성찰저널을 작성하는 것으로 그치는 데 반해, 페이스북은 다른 학습자, 교수자 등과 상호작용이 가능하므로 개인이 성찰저널을 작성해서 올리면, 다른 학습자들이 이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는 형태로 성찰활동을 진행하였다.

2.2 성찰활동의 효과

기존 연구에서 성찰저널이나 성찰활동의 효과는 많이 검증된 바 있지만[18][19][20], 아직 페이스북 기반 성찰활동을 대형강의에 적용한 사례는 드물다. 성찰저널의 효과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례로 장은호(2007)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 대상 성찰저널 작성은 학습동기와 학습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동기요소 중 주의력, 자신감, 만족감의 항목과 학습결과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고, 성찰저널 작성을 실시했던 실험집단이 실시하지 않았던 통제집단보다 높은 만족도 점수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19]. 또한, King과 LaRocco(2006)의 연구에서도 대학생 수업에서 온라인 게시판 이용하여 성찰저널을 제출하여 성찰활동을 진행하게 하였는데, 이러한 방법은 학생과 교수자의 상호작용을 더욱 증가시키고, 학습효과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다고 보고하였다[20]. 결국 온라인 공간을 활용한 성찰활동은 IT 시대의 교육 환경의 하나로서 자연스러운 현상의 하나라고 볼 수 있으며, 새로운 시대에 따른 새로운 수업환경이 가지는 사회성, 개방성, 상호작용, 유연성, 기록성에 대한 특성을 활용한 대학생 대상 연

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페이스북 기반 성찰활동을 통해서 학습자들의 생각을 구성하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고 스스로 성찰하며,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여 좀 더 자신을 객관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 이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 참여자 및 특징

본 연구의 대상은 4년제 A대학교의 1, 2학년의 학부생들이 수강하는 교과목 2개의 분반을 대상으로 하였다. 2개의 분반은 같은 교수자가 가르치며, 동일한 수업내용 및 계획으로 진행되었다. 분반된 2개 반을 대상으로 a반 수강생 100명은 페이스북에서 협력적 성찰활동(실험집단)을, b반 수강생 100명은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사이버캠퍼스에서 협력적 성찰활동(통제집단)을 진행하였고, 설문에 무성의하게 참여했거나, 참여하지 않은 19명을 제외하여 최종 연구대상은 181명(페이스북집단: 80명, 사이버캠퍼스 집단: 81명)이었다. 페이스북 집단은 남 45%, 여 55%, 사이버캠퍼스 집단의 경우 남 44%, 여 56%로 구성되었다. 학년별 분포는 페이스북 집단은 1학년 56%, 2학년 44%, 사이버캠퍼스 집단은 1학년 55%, 2학년 45%로 분포되어 두 집단 간 성별 및 학년구성에는 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Levene의 등분산 검정 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이의 등분산 가정이 충족되어 두 집단이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술통계 결과를 기반으로 페이스북 수업, 사이버캠퍼스 수업에서 만족도가 높은 학생 4명, 낮은 학생 4명을 각각 선정하여 만족도에 대한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분석하였다.

3.2 연구 절차

3.2.1 연구절차

본 연구는 동일한 교과목에서 분반된 2개 반을 대상으로 총 4주간 수강생 100명(실험집단) 학생들은 페이스북에서 성찰활동을, 수강생 100명(통

제집단)에게는 사이버캠퍼스에서 성찰활동을 진행하였다. 우선 연구시작에 앞서 페이스북과 사이버캠퍼스에 교과목 그룹을 생성하고, 각 기능에 대한 설명과 오류가 있는지 점검하였다. 페이스북에서 성찰활동을 진행한 집단은 주차별 성찰저널을 올리고, 다른 학생이 올린 성찰저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페이스북의 생성된 그룹 페이지에 공유하여, 함께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자유롭게 생각을 공유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사이버캠퍼스 집단도 사이버캠퍼스에서 동일하게 성찰활동을 진행하였다. 각 집단의 연구대상자들은 4주 동안 성찰저널을 작성하고 각 학습 환경을 통해 공유, 상호간 피드백 과제를 수행하였다. 두 사이트에서 사용한 메뉴기능은 강의자료 공유, 성찰저널 작성을 위한 토론방, 공지사항, 과제관리 게시판 등 동일하게 설계하였으며 서로 간에 피드백 할 수 있는 기능과 자료를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단 페이스북의 경우 사이버캠퍼스와 달리 개방적인 구조 상 수업커뮤니티 외에 다른 사용자와 상호작용이 가능하였다.

3.2.2 자료분석방법

가) 양적 분석

4주간의 성찰활동을 포함한 수업 후 수업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SPSS 19.0으로 독립표본 t 검정(independent-samples t test)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나) 질적 분석

양적분석결과를 바탕으로 181명의 만족도 설문대상자 중 16명을 선정하여 사후 인터뷰를 통해 수업만족도에 대한 질적 분석을 진행 하였다. 샘플링 기준은 나장함(2012)의 최대차이 샘플링방법을 선택하였다. 최대차이샘플링이란 실험 전과 후 결과에서 최대 차이를 보인 샘플을 분석하는 방법이다[21] 면담의 주요 질문은 페이스북 기반/사이버캠퍼스 기반 성찰활동이 개인적인 성찰에 주는 도움여부, 교수 및 동료 간 상호작용의 적절

성, 스스로에 대한 새로운 탐색 여부, 수업환경별 접속시간 및 접근성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3.2.3 페이스북 기반 성찰활동

주차별 주제에 대해서 수업과 관련된 자기성찰, 동료 성찰저널에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 동료, 교수자의 피드백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 성찰저널 공유를 통한 추가적인 성찰에 대한 내용을 게시하도록 하였다. 개인의 성찰저널을 게시물로 업로드하여 학습자 간 공유하였으며, 공유를 통해 동료 간 성찰저널과 관련 있는 학습 자료를 게시하여 학습자가 보다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학습내용을 학습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3.3 수업만족도 도구

수업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White(2009)의 검사도구를 사용하였으며, 5점 척도의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1이다[22]. 대표적인 문항의 예로 '페이스북(사이버캠퍼스)에서 성찰활동을 진행한 수업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등의 전반적 수업만족도와 페이스북(사이버캠퍼스) 수업에 참여하면서 수업내용(댓글, 피드백 등)에 관심을 가졌다.'는 등으로 학습활동 만족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연구결과

4.1 페이스북과 사이버캠퍼스에서 성찰활동에 따른 수업 만족도 차이

연구문제 1에 답하기 위해 페이스북 기반 성찰활동과 사이버캠퍼스 기반 성찰활동에 따른 수업 만족도 차이를 비교한 결과, 페이스북 집단의 만족도 평균(M)은 4.13, 표준편차(SD)는 0.91이며, 사이버캠퍼스 집단의 만족도 평균(M)은 3.82, 표준편차(SD) 1.02이다. 이는 페이스북에서 성찰활동을 수행한 집단이 사이버캠퍼스에서 성찰활동을 수행한 집단보다 평균(M)이 0.31 높은 결과이다.

<표 1> 만족도에 대한 t 검정 결과

집단	평균 (M)	표준편차 (SD)	t
페이스북(a)	4.13	0.91	1.13*
사이버캠퍼스(b)	3.82	1.02	

* $p < .05$. ^a $n = 90$. ^b $n = 91$.

페이스북과 사이버캠퍼스에서 성찰활동에 따른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t 통계값은 1.13, 유의확률은 .014로서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실제적 효과크기인 Cohen's d 는 0.32로 작은 효과크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Cohen (1988)의 효과크기 해석 기준에 따르면, $d = 0.20$ 에서 0.50 사이의 효과크기는 '작은 효과', $d = 0.50$ 에서 0.80의 효과크기는 '보통 효과', $d = 0.80$ 이상이면 '큰 효과'를 의미한다.

4.2 수업만족도 사후면담 결과 분석

사후면담자 선정은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인 참여자와 매우 낮은 만족도를 나타낸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페이스북사용에 높은 만족도를 보인 학생 2명, 낮은 만족도를 보인 학생 2명씩 총 4명을 선정하여 분석하는 최대 차이 샘플링[20]을 기준으로 선정, 실시하였다.

페이스북기반 성찰활동에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참여자(A)는 "매주 과제에 대한 성찰저널 작성할 때 페이스북에 수업을 같이 듣는 동료가 있는지 확인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는 아는 사람이 온라인에 있으면 채팅도 하면서 정보도 얻고, 고민도 해결하는 경우로 이어져서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것에 동기부여가 된다고 하였다. 이런 동기부여는 수업에 대한 적극성인 참여로 연계되어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대외 공모전 참여할 때, 공모전 참가할 팀원도 수업에서 개설된 그룹의 '채팅' 기능을 통해서 구성했던 경험도 했다고 말했다. 이런 결과는 페이스북의 속성을 수업에서 잘 적용하여 동시간대 접속한 사람들과의 채팅을 통해 학생들끼리 새롭게 친분을 형성하고, 교류함으로써 정보 및 관심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학습도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페이스북

성찰활동에 높은 만족도를 보고했던 참여자(B)는 “주차별 진단 결과에 대한 내용을 생각하는 성찰 저널 과제 하면서 좀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의 결과도 보게 돼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또한, 시간이 흘러도 내가 작성한 기록이 남아있어서 좋고, 무엇보다 학교생활에서 진로에 대한 생각의 변화과정을 페이스북에 지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고 졸업 후에도 볼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합니다.” 이와 같이, 페이스북 기반 성찰활동은 동료 간, 교수자와의 소통을 통해서 대규모 강의에서 진행되는 일방적인 강의에서 벗어나 자신의 탐색결과를 기록하고, 서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개방적인 특징을 보여주었다. 또한 사이버캠퍼스의 경우 졸업 후 접속할 수 없지만, 페이스북은 지속적으로 접속이 가능하여 자신의 생각을 추적해볼 수 있다.

반면에, 낮은 만족도 결과를 나타낸 참여자 분석은 다음과 같다. 참여자(C)는 “페이스북을 사용이 불편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 역시 그렇다. 사실 뉴스피드를 하루정도 안 읽다가 몰아서 볼 때 주의 깊게 보지 못하거나 아예 못 보는 경우도 많아 수업을 하면서도 불안한 마음도 든다. 그렇기 때문에 접속이 다소 귀찮고 불편해도 그때, 그때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사이버캠퍼스가 아직은 사용하는데 편해서 좋다.”라고 언급했다. 이는 사이버캠퍼스보다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용이한 페이스북이 접속빈도 및 시간에 따른 사용의 편차가 있음을 알 수 있는 예시이다. 참여자(D)는 “사이버캠퍼스를 선호하는 이유는 수업은 수업시간에 끝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업 외의 시간도 생각하고 그 내용을 실시간 올린다는 것이 생각보다 신경 쓰이고 부담스러워요, 또한 내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사생활이 노출이 생각보다 많아서 지금처럼 100명이라는 대강의에서는 더 마음이 내키지 않는 것이 사실이에요.” 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페이스북 집단의 수업 만족도가 높았던 이유는 페이스북 기반 성찰활동은 동료 간, 교수 간에 상호작용에 대한 효과성, 작성에 대한 편리성 등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사생활 침해, 파일 문서 공유의 제한점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의견이 동시에 나왔다. 이러한 제한

점을 보완한다면 대학강의에서 페이스북을 활용하는 것은 수업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5.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대형강의에서 페이스북과 사이버캠퍼스에서 성찰활동을 진행하고 수업만족도 차이를 규명하는 데 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페이스북집단의 만족도는 평균(M)은 4.13, 표준편차(SD)는 0.91이며, 사이버캠퍼스 집단의 만족도는 평균(M)은 3.82, 표준편차(SD) 1.02이로 페이스북 집단이 사이버캠퍼스 집단에 비해 더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각 그룹별(페이스북집단, 사이버캠퍼스집단)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학생 2명, 낮은 만족도를 나타낸 학생 2명씩을 대상으로 인터뷰 결과, 페이스북에서 성찰활동을 진행한 수업이 학생들에게 수업에 대한 동기부여 및 참여활동에 대해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료 및 교수 간 피드백의 적절성, 성찰저널 및 상호간에 피드백 내용 및 새로운 자료들에 대한 자료의 기록들이 수업 이후에도 수업내용에 대한 추가 탐색 및 성찰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이였다.

100명의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대형강의에서 모든 학습자의 참여정도를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학습자 참여정도에 대한 파악이 용이하고, 학습 참여활동이 저조한 학습자를 비교적 쉽게 발견하고 해당 학습자에게 동기부여 하는 매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동기부여는 학습자에게 교과목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본 연구는 페이스북에서 성찰활동이라는 교수 학습전략만을 활용하였지만, 모델링이나 다른 다양한 교수학습전략의 병행이 필요하다. 대형교양 강의의 경우 수업시간에는 현실적으로 교수자나 동료와의 상호작용이 적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수업성도가 낮은 경우가 많으므로 페이스북 등의 온라인 환경에서 이를 보완하는 방법에 고

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는 수업 성과 중 수업 만족도 변인만을 선택하여 실험연구와 질적 연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학습성취도, 실재감 등의 추가적인 변인에 대한 연구를 통합적으로 규명하는 것도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김경숙, 이성엽 (2011). SNS를 활용한 직장인의 무형식학습 사례 연구; Facebook 활용을 중심으로. **HRD 연구**, 13(4), 31-61.
- [2] 나일주 (2011). 소셜 네트워크와 교육: 그 가능성과 과제. **한국교육정보미디어학회 춘계학술대회**, 한양대학교(2011. 4. 9), 1-14.
- [3] 엄대진 (2011). **소셜러닝 플랫폼의 3대 요소 분석**.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Schroeder, A., Minocha, S., & Schneider, C. (2010). The strengths, weaknesses, opportunities, and threats of using social software in higher and further education teaching and learning. *Journal of Computer Assisted Learning*, 26(3), 159-174.
- [5] Davis, Michelle R. (2010, November). Social Networking Goes to School. *The Education Digest*, 76(3), 14-19
- [6] 김성미 (2012).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 확장적 학습을 위한 개념적 모형 개발연구: 미디어 생태학과 활동이론에 근거하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7] 김월선 (2012). **소셜 러닝을 활용한 웹프로그래밍 수업 운영 방법의 설계 및 평가**.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8] Strauss, L. C., & Volkwein, J. F. (2004). Predictors of student commitment at two-year and four-year institutions. *Th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75, 203-227.
- [9] 서민원 (2003). 다중모형의 논리적 구조와 적용: 대학 교육의 효과 측정과 분석. **교육평가연구**, 16, 43-63.
- [10] 김안나·이병식 (2003). 대학생들의 핵심능력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환경요인 분석. **한국교육**, 30, 367-392.
- [11] 이병식·최정윤 (2008). 다중모형을 활용한 대학생 핵심능력 개발의 영향 요인분석: 대학 교육과정과 대학 특성변인의 영향. **한국교육**, 35(2), 243-266.
- [12] 권성호 (2001). 웹 기반 가상교육에서 협력적 상호작용 촉진을 위한 학습자 지원전략 개발: 튜터의 역할을 중심으로. **교육공학연구**, 16(1), 3-27.
- [13] Mazer, J. P., Murphy, R. E., & Simonds, C. J. (2007). I'll see you in "Facebook": The effects of computer-mediated teacher self-disclosure on student motivation affective learning and classroom climate. *Communication Education*, 56(1), 1-17.
- [14] 이상수, 강정찬, 오영범, 이유나 (2011).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참여 동기 분석에 기초한 소셜 네트워크 기반 교육 설계 원리. **교육방법연구**, 24(4), 729-754.
- [15] de Villiers, M. R. (2010). *Academic use of a group on Facebook: initial findings and perceptions*. Proceedings of the Informing Science & IT Education Conference 2010, 173-190.
- [16] Selwyn, N. (2009). Facebooking: exploring students' education-related use of Facebook. *Learning, Media and Technology*, 34(2), 157-174.
- [17] Fritson, K. K. (2008). Impact of journaling on students' self-efficacy and locus of control. *Insight: A Journal of Scholarly Teaching*, 3, 75-83.
- [18] 장은호 (2007). **블랜드드 러닝에서 성찰일지의 작성이 학습동기와 학습 결과에 미치는 영향**. 미 간행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19] King F. B. & LaRocco D. J. (2006). E-journaling: A strategy to support student reflection and understanding. *Current Issues in Education*, 9(4), 75-98.
- [20] 나장함 (2012). 교과교육과 수업연구에서의 질적 접근: 질적 연구 샘플링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교육연구**, 53(1), 75-104.

- [21] White, J. (2009). *The use of Facebook to improve motivation and writing*. Proceedings of the Third international Wireless Ready Symposium, 28-31.



서주연

2000 한신대학교 경영학과(학사)
2013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과
(석사)
2012~2013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교수

2013~현재 삼성전자 상생협력아카데미 과장

관심분야: 컴퓨터교육, 스마트러닝

E-Mail: jooyoun.seo@samsung.com



이정민

2001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과
(학사)
2003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공학과(석사)

2009 플로리다주립대 교육심리 및 교육공학과(박사)

2010~현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문제해결설계, 모바일러닝, 소셜러닝

E-Mail: jeongmin@ewha.ac.kr